

‘피크아웃’ 암초 만난 해운株 하락세… “성장성 지켜보아야”

지난주 HMM·팬오션 주가 급락
기관·외국인 잇따라 팔아치워
해운운임 상승세는 회복 전망
원자재 수요 등 불확실성 여전



/유투이미지

코로나19 이후 전례 없는 성장세를 보인 해운주가 피크아웃(고점 통과) 우려 속에 하락을 거듭하고 있다. 공급이 부족한 탓에 운임이익은 당분간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중장기적인 성장성은 지켜볼 필요가 있던 지적이 나온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8일 글로벌 컨테이너선사이자 해운 대장주인 HMM의 주가는 2만905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2주 전인 지난달 27일 종가(3만8400원)에 비해 24% 하락한 수치다. 주가가 2만원대를 기록한 건 지난 4월 15일(종가 2만9850원) 이후 5개월여만이다. 같은 날 벌크선사인 팬오션도 27일 종가(7740원) 대비 13.6% 하락한 6690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6월

15일(종가 6900원) 이후 4개월여만에 주가가 6000원대로 떨어졌다.

주가 하락을 이끈 건 기관과 외국인의 해운주 매도세였다. 지난주(10월 5일~10월 8일) 기관 투자자는 팬오션 주식을 220억원, HMM 주식을 206억원어치 순매도했다. 두 종목은 나란히 기관 투자자 순매도 상위 8위와 9위를 기록했다.

외국인도 팬오션 주식을 335억원, HMM 주식을 140억원어치 순매도했다. 반면 개인은 팬오션 주식을 547억원, HMM 주식을 357억원어치 사들였다.

매도를 촉발한 주요 요인은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꼽힌다. 중국을 비롯해 유럽, 인도 등지에서 전력이 끊겨지면서 제품 생산과 함께 물동량도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주가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그간 글로벌 선사들은 코로나19 발발 이후 물동량이 급증한 데 따른 수혜를 입어 왔다. 지난 8일 벌크선 운임 지표인 발틱운임지수(BDI)는 전날 5650포인트로 고점을 찍은 후 2.19% 하락했다. 컨테이너선 운임 지표인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도 지난주(9월 30일 발표 기준) 4614.1로 하락 전환한 바 있다.

그럼에도 향후 운임은 상승세를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 연말 대규모 소비 시즌을 앞둔 상황인 데다 코로나19로 인한 항만 적체와 내륙운송 지연 등 운임이 상승할 요인이 강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8일 장마감 후 새롭게 발표된 SCFI는 4647.6포인트로 상승 전환했다.

양지환 대신증권 연구원은 “10월 초 중국의 국경철 연휴 시작 및 중국 당국의 주요 항로별 운임 상승 제한 등으로 4분기 컨테이너 운임의 추가 상승은 제

한될 것”이라면서도 타이트한 공급이 “미국의 소비경기 둔화에 따른 물동량 감소가 나타나기 전에는 쉽게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중장기적인 피크아웃 우려와 성장성 리스크는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정연승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벌크선의 경우 운임 상승에도 불구하고 내년 원자재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며 “BDI 지수 상승에도 벌크선 기업들의 주가 상승은 제한되는 흐름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방진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HMM이 “내년에 (코로나19 정상화 과정을 거치면서) 피크아웃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팬오션의 주요 사업인 드라이벌크업황도 “제한적인 신조 발주와 2023년부터 강화될 환경규제(EEEX I)로 중장기적으로 타이트한 공급이 유지될 수 있어 시황에 하방 경직성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유경 기자 noon@metroseoul.co.kr

‘3배 추종’… 서학개미, ETF·ETN 베팅

해외주식 Click

지난주 관련 상품 5000억 순매수
매수액 1위~3위 고위험 레버리지

서학개미들의 투심이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에 쏠렸다. 지난주 헝다그룹 이슈와 부채 한도 협상 등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ETF로 대응하려는 움직임이 강해진 것으로 해석된다.

12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주(10월 4~8일)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주식 순매수 톱10 중 6개가 ETF와 ETN으로, 총 순매수액은 4억4056만달러(약 5270억원)에 달했다. 특히 지수를 3배로 추종하는 고위험 레버리지 ETF 및 ETN이 순매수액 1위부터 3위까지 선점하며 톱10 총 순매수액의 50% 가까운 순매수액 2억5873만달러를 기록했다.

순매수 1위는 3주 연속 프로세서즈 울트라프로 QQQ ETF(TQQQ)가 차지했다. TQQQ는 대형 기술주로 구성된 나스닥100지수를 3배로 추종한다. 순매수액은 9779만달러(약 1172억원)로 2주 전(1억3330만달러)보다 3551만

달러 줄었지만, 지난달 27일(종가 138.37달러) 이후 주가가 130달러 선을 회복하지 못하는 TQQQ를 서학개미들이 꾸준히 저가에 사들이는 모양새다.

2위는 디렉시온 데일리 세미컨덕터블 3X ETF(SOXL)가 차지했다. SOXL은 미국 반도체 우량 종목 30개로 구성된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를 3배로 추종하는 상품이다. 순매수액은 9025만달러(약 1082억원)로 1위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SOXL 또한 지난달 27일(종가 47.69달러) 이후 주가 40달러 선을 회복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중이다.

다음으로는 몬트리올은행에서 출시한 마이크로섹터 FANG 이노베이션 3X ETN(BULZ)과 마이크로섹터 FANG 지수 3X ETN(FNGU)가 각각 3위(7069만달러)와 7위(1765만달러)를 차지했다. 특히 BULZ는 순위로 보면 2위에서 3위로 하락했지만 순매수액 자체는 2주 전(4410만달러)보다 60% 상승했다. BULZ는 미국에 본사를 둔 15개 기술 성장주들로 구성된 솔렉티브 FANG 혁신지수를 3배로 추종하는 상품이다. 이 지수는 FNGU와 달리 알리바바 등 중국 기업을 제외한 넷플릭스(7.342%), 소프트웨어기업인 세일즈포

스닷컴(7.153%), 테슬라(7.073%), 글로벌 반도체 제조사인 AMD(6.917%) 등으로 구성되었다.

개별 종목으로 자사의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몰누피라비르’가 임상에서 유효했던 결과를 발표한 머크가 4위에 올랐다. 머크는 지난 1일(현지시간) 몰누피라비르 투약 결과 코로나19 경증증 감염 환자의 입원 및 사망 위험이 50% 가량 낮아졌다는 3상 임상 중간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몰누피라비르는 정맥 주사로 투여하는 레메시비르 등과 달리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한 치료제다. 머크는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 FDA에 몰누피라비르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한 상태이며, 승인될 경우 팬데믹 정상화를 앞당기는 역할을 해낼 것으로 보인다.

이외 9월 27일(종가 835.31달러) 이후 주가 800달러 선이 무너진 후 700달러대 초반을 횡보 중인 ASML도 저가 매수세에 힘입어 4주째 순매수액 상위 5위권을 유지했다.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6일까지 4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기록한 홍콩H지수 ETF 또한 6위(2292만달러)로 4주째 순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양유경 기자 noon@

삼성家 2조원대 주식 매각… 그룹주 ‘급락’

홍라희 등 상속세 마련 위해 처분
삼성전자 주가 6만원대로 떨어져

삼성 일가의 ‘2조원대’ 주식 매각 소식에 그룹주가 동반 급락했다.

삼성 일가는 고(故) 이근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산에 대한 12조원 규모의 상속세를 5년 분할 납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 8일 종가기준 약 2조1575억원 규모의 주식을 매각기로 결정하면서 12일 삼성그룹주 대부분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날 삼성전자 주가는 10개월여만에 6만원대로 주저앉았다. 삼성전자가 7만 원선을 밀든 건 지난해 12월 3일 이후 처음이다.

삼성전자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3.5% 내린 6만9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삼성SDI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3.35% 하락한 66만3000원에 마감했다.

삼성전기 주가는 전 거래일과 비교해 4.5% 급락해 15만9000원까지 밀렸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각각 3.36%와 0.62% 내린 6만9100원과 23만9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 밖에도 삼성에스디에스(-6.54%), 삼성물산(-2.87%), 삼성카드(-1.87%) 등 주요 그룹사 주가도 일제히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뉴스1

하락했다

한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난 9일 홍라희 전 관장은 삼성전자 주식 1994만1860주에 대해 KB국민은행과 유가증권 처분신탁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1조4258억원에 달하는 규모로 삼성전자 전체 주식의 0.33%에 해당한다. 현재 흥 전 관장의 삼성전자 지분율은 2.3%다. 이어 흥 전 관장의 두 딸이 부진 신라호텔 사장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도 삼성SDS와 삼성생명 등의 주식을 매각하기로 했다.

앞서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 일가는 상속세를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납부하기 위해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에스디에스와 삼성생명 등 보유 주식 일부를 법원에 공탁한 바 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신한금투, ‘글로벌 매거진’ 창간호 발간

신한금융투자가 글로벌 금융 시장의 핵심이슈를 매일 쉽게 접할 수 있는 ‘신한 글로벌 매거진’ 창간호(사진)를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신한 글로벌 매거진’은 커버스토리, 투자아이디어, 산업분석 등 매일 발행되는 데일리리포트 보다 긴 기간을 두고 시장 및 산업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창간호는 투자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커버스토리는 ‘시장의 컬러는 변화되고 있다’로 10월 이후 시장 전망을 담고 있다. ‘헝다사태’를 담은 ‘글로벌이슈’와 메타버스 등 다양한 테마를 소개하는 ‘투자테마’, ‘차트로 보는 세상’까지

흥미롭고 유익한 내용으로 꾸며졌다.

‘신한 글로벌 매거진’은 신한금융투자 홈페이지 및 HTS, MT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윤창용 신한금융투자 리서치센터장은 “기존 투자정보를 이해하기 쉽고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하고 있다”며 “하나의 투자정보가 직원뿐만 아니라 전 연령 및 전 채널 고객을 대상으로 투자정보를 쉽게 전달 될 수 있도록 투자 콘텐츠의 원소스멀티유즈(One Source Multi Use) 체계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백미경 기자

회계기준원 ‘한중일 회계기준제정기구’ 회의

오늘 화상으로 회의 개최

한국회계기준원이 오는 13일 ‘2021년 한중일 회계기준제정기구 회의’를 화상으로 주최한다.

이 회의는 한·중·일의 회계기준제정 기구가 모여 각국의 회계현안 및 최근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프로젝트에 대해 정보와 의견을 공유하고, 3국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02년

부터 매년 각국을 순회하며 개최되고 있다.

3국 회의 구성원인 한국회계기준원(KASB), 중국회계기준위원회(CASC), 일본회계기준위원회(ASBJ)와 참관자(observer)인 홍콩공인회계사회(HKICPA), 마카오회계전문위원회(PCACA)가 참석하고, IASB 대표단도 참석할 예정이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